

#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 '대표이사'를 처벌하라!

8 백승호 기자 | 2021.03.09 18:08

**산재는 살인이다.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대표가 사고의 책임자다!  
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하청 대표이사를 처벌하라!**

오늘(3.9 화)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에서는 김용균재판 두번째 본공판에 앞서 민주노총, 새움터, 정의당총남도당, 태안화력 비정규노동자들이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원청사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처벌하라며 선전전을 벌였다.



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

오늘 공판에는 지난 첫번째 재판에서 매번 2명씩 총 15명의 증인신문을 하기로해서 사고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 시청 및 1명의 증인을 심문했다고 한다.

김용균재단은 지난 2월 15일 고 김태규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고 오랜투쟁끝에 하청 건설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. 한해 2600여명의 산재사망자 중 건설현장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사업주의 공식사과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. 그러나 발주처인 에이씨엔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.

이렇듯 김용균재판이 원,하청 대표이사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며,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.



백승호 기자 [nanda6636@hanmail.net](mailto:nanda6636@hanmail.net)